

:: Self Idea ::

# 내 손으로 만드는 청국장

최근 청국장 열풍이 부는 가운데 집에서 내 손으로 청국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들의 바람을 알기라도 하듯이 각종 기계들이 나와 콩 넣고 단추 하나만 누르면 청국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 요구르트·청국장 제조기

요구르트·청국장 제조기 '엔유씨 발효기'는 속성 발효를 통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요구르트 또는 청국장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백태콩을 불리고 삶은 후 제조기에 넣고 24시간만 기다리면 구수한 청국장으로 변해있다. 완전밀폐구조로 청국장 특유의 냄새도 깔끔하게 없애준다. 또 일반 우유와 요구르트 소량을 혼합해 요구르트 제조기에 넣고 전원을 연결하면 8시간 만에 맛있는 요구르트가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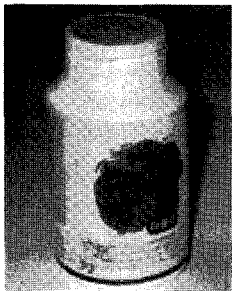
이 제품은 LG 홈쇼핑에서 올 연초에 월 4억원 가량 판매되다가 11월에는 150% 가량 판매가 경총 뛰어 10억원 이상 판매가 예상되고 있다. LG 홈쇼핑 관계자는 '4인 가족이 요구르트를 하루 하나씩 한 달간 먹으려면 적어도 5만원 이상이 드는데 만들어 먹으면 재료비 1만 5천원에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청국장 관련 제품에 대한 열풍은 발명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인 이영근 교수(수원여자대학)와 윤성순 사장(콩그린 식품)은 콩 관련 제품, 특히 청국장 관련 제품을 발명, 건강에 좋고 먹기도 간편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 콩을 1년 동안 발효시켜 만들어낸 발효곡분에 2차적으로 유산균을 첨가하여 개발한 '헬씨락토'.

이영근 교수가 강남농산(대표 조용구)과의 산학연소시업을 통해 발명한 '헬씨락토(분말 청국장)'는 콩을 1년 동안 발효시켜 만들어낸 발효곡분에 2차적으로 유산균을 첨가시켜 개발한 제품. 지난 5월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주관하여 열린 '제10회 여성발명 우수 사례 발표회'에서 우수 발명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 타블렛 형태로 만들어져 환자식, 이유식, 영양식으로 좋고 야외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개발된 '콩킹 타블렛'.

또한 윤성순 사장은 분말 청국장인 '냄새없는 청국장 콩킹'과 '콩킹 타블렛', 콩 발효 음료 '콩킹' 등을 개발, 웰빙식품 전문숍인 '올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 '해외지재권 보호설명회' 개최

특허청은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적권 침해가 빈번함에 따라 지난 5월 7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KIPS)에서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우리 기업 상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지적권 피해사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적권 분쟁해결 정보 및 노하우의 공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 및 제품정보 등을 빼내간 뒤 이를 바탕으로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특허 및 상표침해의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의 유명상표 및 특허 기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무차별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도 및 법령, 지식재산권 침해사례 등이 소개되었으며, 아울러 중국 진출시 성공적인 투자 노하우 등을 함께 소개하여 지적권 침해예방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 노하우도 함께 설명되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방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피해방지 능력이 향상되어 기존의 유사한 피해사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여성지도자회의' 통해 세계 84개국 여성들 모여

세계 각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04 서울 세계여성지도자회의(Global Summit of Women 2004)'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지구촌 경제계, 정·관계 여성 N해 리더들의 협의체로 올해로 11회째를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인 84개국 8백여명의 여성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루이자 디오고 모잠비크 총리, 트롱 마이 호아 베트남 부통령, 자스민 바도우 모로코 고용사회연대 부 장관, 에이린 캐롤 캐나다 국제협력부 장관 등 각국 장관급 여성지도자 42명이 모여 원탁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세계여성지도자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성기업박람회(WEXPO)가 열려 해외기업 25개 업체와 국내기업 25개 업체의 여성 최고경영자들이 제품 전시를 통한 사업 제휴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들 가운데 ㈜황기모아(대표 류숙), 좋은날(대표 최승애), 다손식품연구소(소장 조은경), CAMI 은점도공예(대표 나순임), 황야(대표 신정순)가 참가해 우리 고유의 발명 기술들을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선보였다.

# 2004년 변리사 1차 시험 1천53명 합격

특허청은 금년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를 2차 최소 합격인원의 5배에 해당하는 1천53명(동점자 71명 포함)으로 확정하여 발표했다.

1차 합격자 선정기준은 매과목 과락 없이(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2백명)의 5배인 1천명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 동점자를 합격시킨 것이다.

합격 커트라인은 총점 257.5점, 평균 64.38점으로 1차 합격자를 살펴보면 여성 합격자는 2백31명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고('03년 2백43명, 24%), 연령별로는 24~31세가 6

백92명으로 다수(66%)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차 시험 합격자 중 97%에 해당하는 1천22명이 이공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변리사시험이 대표적인 이공계 시험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올해 시행되는 2차 시험은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및 경영관에서 오는 8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2일간 시행되며, 2차 시험 총 응시대상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중 금년에 면제자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1천5명을 합하여 총 2천58명으로,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백명을 기준으로 2차 시험 최종경쟁률은 약 10대 1로 나타나고 있다.

# 반품·중고품 매매 전문 사이트 인기

최근 새 제품과 다른없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인터넷 상의 반품 전문 쇼핑몰과 중고품 매매 사이트만 잘 살펴도 사용하던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고를 수도 있다.

반품(返品)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신품과 차이가 나지 않는 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완전한 신품이 아니라는 점만 참아내면 20% 정도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것. 예를 들어 반품 전문 쇼핑몰인 '리퍼브숍(www.refurbshop.co.kr)'에 들어가 보자. 이 쇼핑몰에서는 반품된 유아용품, 주방 생활가전,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 이곳에서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1백85만원 전후에 팔리는 후지쯔 노트북 E4010 XCM14를 1백69만원에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홈쇼핑에서 판매되었다가 반품된 제품으로 다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런 쇼핑몰에서 살 때에는 반드시 구매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과거 반품 전문 사이트들은 주로 가전·전자제품을 취급했지만 최근에는 파는 물건들도 다양해졌다. '유니즈닷컴(www.uniz.co.kr)'은 유명 브랜드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가구, 스포츠, 생활 잡화도 판매한다. '반품닷컴(www.vanpum.com)'도 마찬가지다. 아예 명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품 매장도 생겼다. '반품럭셔리(www.vpluxury.com)'는 명품 반품, 재고 및 중고명품을 할인판매 한다.

또한 중고품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돈을 내고 버려야 할 물건들을 팔 수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파인드유즈드(www.findused.co.kr)'. 컴퓨터 관련 제품부터 자동차, 생활용품까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의 80%가 중고품이다. 일반 개인도 이 사이트에 물건을 사고 판다는 글을 올릴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무료이고, 사진 첨부 등의 유료옵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3천원에서 1만 8천원의 광고료가 붙는다.

이밖에도 옥션이나 온켓 등의 중고 경매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중고품 전문 사이트

사이트명	주소
파인드유즈드	www.findused.co.kr
옥션/우리들의 중고세상	www.auction.co.kr/joongo
온켓/중고품샵	www.onket.com/oldies/UsedShop.jsp?kid=61
다음/중고마켓	omp.daum.net/top/Top.html

## 반품 전문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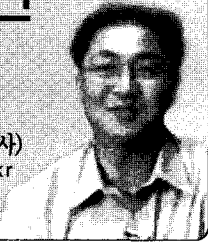
쇼핑몰	주소
반품닷컴	www.vanpum.com
반품할인닷컴	www.banpumdc.com
재고몰	www.jaego.co.kr
리퍼브숍	www.refurbshop.co.kr
유니즈닷컴	www.uniz.co.kr

기사문의 [www.inventor.or.kr](http://www.inventor.or.kr)  
(02)538-2710 Fax (02)538-2714

기고문

###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활용

백건수 (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산업재산권의 보호 범위, 즉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것은 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인 요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대상물(실무상 ‘(가)호’라 칭하고 있다)과의 관계에서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산업재산권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범위의 명확한 판단이 요망된다. 그러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권리와 분쟁 대상 간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보통 법원이 권리범위를 심리·판단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를 심리하도록 채택하고 있고, 이는 전문적 기술지식에 입각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법정책상의 기대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권리자가 (가)호 실시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리에 속한다’고 심판청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가)호 실시자(즉 이해관계인)가 권리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판청구하는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지 않고서 바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도 법원에서 권리범위를 판단한다. 이러한 면에서 굳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민·형사 사건에서 권리범위를 쉽게 판단하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민·형사 사건에서 100% 지지받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민·형사 법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과 다른 판단을 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민·형사 판결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다른 경우는 사실상 대법원에서 하나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의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이 그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면 그 공지된 부분은 권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위 ‘공지제외설’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의 공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권리 전체가 공지된 것이라고 판단 받으면 사실상 권리 무효가 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권리자가 권리 주장을 해올 때 그 권리에 대한 원부를 특허청에서 발부 받아 이 권리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지제외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침해자측 입장에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것인지를 상황에 맞게 그리고 자신에게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야 한다.

## 특허청 직원 지재권 관련 국제회의 부의장으로 잇따라 선출

특허청 국제협력과 정인식 사무관이 지난 4월 말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제12차 WIPO 상표법상설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WIPO 상표법상설위원회는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 현안들을 검토하는 WIPO 내 4개 상설위원회 중 하나로, 상표법통일화조약의 개정,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지재권적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곳이다. 이번에 부의장으로 선출된 특허청 정인식 사무관은 행정고시 40회로 상표심사관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국제협력과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표법 전문가.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에 특허청 심사조정과 김희태 서기관이 부의장으로 내정되어 우리나라 특허청 직원이 국제회의의 부의장으로 잇따라 선출, 국내 특허 전문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는 현재 특허법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해 검토 중인 특허실체법조약(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선발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측과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의 상반된 입장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법상설위원회에 부의장으로 내정된 김희태 서기관은 기술고시 27회로 특허 심사 및 심판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재원으로 알려져 있다.

## ‘짝퉁상품’ 고발에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한다

일명 ‘짝퉁상품’으로 불리는 가짜 유명상품의 제조자와 대규모 보관시설 등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내년부터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특허청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상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짝퉁상품’을 만들거나 창고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에게는 상훈 등 인사상 인센티브와 상금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내년 예산에 1억 5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예산이 확보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고발 포상금

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단속 공무원들이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전국 20개 위조 상품 중점단속지역과 31개 주요 관찰지역에서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 현성훈 산업재산보호과장은 ‘공무원만으로는 가짜 유명 상품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고발 포상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포상 대상과 규모 등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짜 유명상품 등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건수는 2000년 6천2백22건(7천3백86명), 2001년 7천8백90건(9천3백33명), 2002년 8천1백23건(9천7백75명), 지난해 6천6백57건(8천5백42명) 등이 있다.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5월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특허청이 후원하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세미나가 ‘외국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제도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1일 한국지식재산센터(KIPS)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세부 내용은 일본의 병행수입관련 최근 판례동향 및 독일의 직무발명제도 현황 등이었다. ‘특허와 상표의 병행수입에 관한 판례 동향’은 일본 오노 쇼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일본의 BBS사건을 중심으로 병행수입의 대상, 침해 판단기준 등을 소개했다.

독일 하인츠 고다 박사는 ‘독일의 직무발명제도’라는 주제로 직무발명 운영·관리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 직무발명 연구원에 대해 어떻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인가를 살폈으며 영국의 장 브릭 변리사는 ‘유럽 특허청의 특허출원실무’라는 주제로 최근 유럽특허청의 특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밖에 발표자와 국내 지재권 전문가인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생활속의 지혜

## 가격비교 사이트로 효율적인 쇼핑하기

똑같은 물건을 발품을 팔아가며 좀더 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고할만한 가격비교 사이트. 인터넷 쇼핑의 가격비교 수단으로 탄생한 가격비교 사이트는 홈쇼핑은 물론 오프라인 할인매장에 이르기까지 가격비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정 상품의 가격을 전문으로 비교하는 전문 가격비교 사이트는 높은 신뢰도가 장점이다. ‘잔돌이닷컴(www.zandori.com)’은 오프라인 할인매장 가격만 전문으로 비교하는 사이트. 가장 많은 제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 회원에 대해 5천~1만점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오일프라이스워치(www.oilpricewatch.com)’는 주유소 기름값만 전문으로 비교한다. 화장품 전문 가격비교 사이트는 ‘코스코스트(www.coscost.com)’, 애견·애견용품 가격비교 사이트로는 ‘개나와(www.gaenawa.com)’ 등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마이마진(www.mymargin.com)’은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구입한 물품을 신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3백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오미(www.omi.co.kr)’는 창립 5주년을 맞아 롯데쇼핑, 우리홈쇼핑, H몰 등 10여개의 쇼핑몰 상품을 구입할 때 3~6%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신재호 마이마진 사장은 ‘단순히 싸다고 살 것이 아니라 안심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비교 사이트에 있는 쇼핑몰 이용기 등을 참조해야 한다’며 ‘가격비교 사이트가 선정하는 인기 상품을 눈여겨 보는 것도 필수’라고 전했다.